

침몰 천안함 수색 나서는 광주출신 전직 UDT대원들

故 한주호 선배 못다한 일 우리가 꼭 해내겠습니다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살신성인’을 실천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전직 UDT(Underwater Demolition Team·해군 특수전부대) 대원들이 나섰다. 한 준위가 못다한 참된 사랑의 정신을 잇기 위해 ‘UDT 동지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회원들이 속속 침몰 현장을 찾아 실종자 구조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2일 만난 ‘UDT 동지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회원 김정현(48)·김동식(41)·송희봉(38)·신효철(35)씨 등은 다시 한 번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빌며 구조작업 계획을 밝혔다.

한 준위의 후배로 복무 당시 고인에게 잠수교육 등을 받았던 이들은 지난달 31일 고인의 빈소를 다녀왔다. 김정현씨는 “(한 준위는)우리 UDT에 있어서는 큰 어른이었다. 나아갈 길을 가르쳐준 부모님과 같았는데... 특전요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도 남달

복무당시 고인에 교육 받아

랐다. 지난 35년간 투입된 수많은 작전에서 항상 위험한 일에 앞장섰던 진정한 군인이었다”고 회상했다.

김씨 등은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만간 사고 현장을 찾아가 구조작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회원 5명은 지난 1일 침몰 현장에 도착해 온 몸으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UDT 동지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회원 수는 모두 50명. 이중 30명은 깊은 바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심해 잠수 능력을 갖추고 있다. 회원들은 다음주 중 2차 선발대를 꾸린 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갈 예정이다.

하지만 격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TV화면에 등장하는 바다는 잔잔하고 맑아 보이지만, 평소 유속(流速)이 2노트(1노트=1.852 km/h) 이상으로 빠르고 시계(視界)가



2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사무실에서 ‘UDT 동지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회원들이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30cm에 불과해 구조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식씨는 “현장에 다녀온 회원들은 ‘조류가 너무 세서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갈 수가

다음주부터 구조작업 동참

없을 정도이고 조수 간만의 시간대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에어 탱크(40kg)·납 벨트(15kg) 등 55kg의 구조장비를 착용한 채 수심 40m 이하에서 작업 가능한 시간은 고작 4분에 불과하다. 해마다 사제인양과 수중정화 등 자원봉사활동

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구조작업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 전직 대원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통은 심정과 한주호 준위의 희생을 떠올리며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희봉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구조작업에 뛰어들고 싶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각종 수중탐색 훈련을 받았다. 침몰 해역의 여건이 워낙 좋지않아 구조작업이 힘들겠지만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078)



무기염산 불법 보관

여수해경 어민 13명 입건

여수해양경찰은 2일 잡채 제거를 위해 김양식장에 뿌릴 목적으로 무기염산을 집 마당이나 야산 등에 보관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민 김모(3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5일 고흥군 도화면의 한 야산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무기염산 8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민 조모(58)씨도 같은 목적으로 순도 99.8%의 고농도 초산 20ℓ, 물이 260통을 자신의 집 마당에 보관한 혐의다.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무기염산 20ℓ 물이 용기 2천100여통을 압수, 폐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방부제 간장’ 판매금지

식중독균 쥐치포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지된 방부제를 넣은 간장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쥐치포도를 판매금지하고 회수토록 했다

다

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몽고식품의 ‘몽고순간장 900ml’와 몽고장유의 ‘몽고진간장 900ml’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합성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성분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식품은 유통기한이 ‘2010. 4. 27’과 ‘2011.12.8’인 몽고순간장 900ml 제품과 ‘2010.9.4’인 몽고진간장 900ml 제품이다.

이와 함께 해청식품이 제조하고 이마트가 판매하는 ‘이마트쥐치포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역시 판매금지,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회수 대상 이마트쥐치포도는 유통기한이 ‘2010.8.30’인 제품이다. /연합뉴스

여친 골탕먹이려다 절도범 신세

여친구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20대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서 행.

○2일 광주동부경찰은 지난달 31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여자친구 황모(여·22)씨의 집에서 황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유모(26·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를 절도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황씨와 말다툼 끝에 황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자신을 찾는 전화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

○경찰에서 유씨는 “여자친구를 골탕먹이려고 장난한 것인데 이렇게 까지 될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주저앉은 소’ 처리 규정이 문제

쥐꼬리 보상금에 절차도 복잡

소 죽으면 밀도축 넘기기 일쑤

정밀검사를 거쳐 광우병 여부를 판단한 뒤 유통폐하할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대량 밀도축 된(본보 4월 2일자 6면) 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관련법에 따라 주저앉은 소를 폐기하고 보상금을 받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보다는 밀도축 업자에게 가져 건네는 것이 훨씬 편리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주저앉은 소(기립불능 소)가 발견되면, 농가(소유주)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뒤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해야 할 소로 판정되면 농가는 또 고시(농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9-393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농가 손에 들어오는 보상금은 젓소의 경우 마리당 50만원 선이며, 폐기

비용이 30~40만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보상금을 지출해야 한다. 또 보상금으로 젓소를 매입하거나 소각할 장소를 찾아 폐기하는 과정에서 해당 농가에 대한 악소문이 도는 것이 두려워 이를 기피하게 된다. 한 번 병든 소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면 우유 출하가 중단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농장 문을 닫아야 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폐기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도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주저앉은 소 밀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군청 관계자는 “지자체 별로 폐기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곳도 있고, 일원화되지 않는것도 문제”라며 “시행한 지 채 6개월이 안 된 고시라 미흡한 점이 분명 있지만, 처리 비용 보전과 함께 보상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예비군들의 결의

2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2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광주지역 시·구·동 통합방위협의회회원, 예비군 지휘관, 여성예비군, 재향군인회원, 해병대전우회원 등 500여 명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 과일창고 불

1억7천만원 피해

지난 1일 밤 10시48분 나주시 노안면 과일선별장으로 사용되는 한 창고에서 불이 나 1억7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창고 1동(1천89㎡)이 모두 불에 타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방울 토마토 10여이 훼손되고 과일선별기 등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실상과 식당 쪽에서 불과 연기가 치솟았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주말·휴일 ‘화창’

광주·전남 낮 최고 18도

주말인 3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지역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3도~영상 3도, 낮 최고 영상 10~14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다고 2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황사는 3일 중부지역에 나타나겠지만, 광주·전남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휴일인 4일은 오전에 맑다가 점차 구름양이 많아지며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영상 4도로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5도~18도까지 올라가 포근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채용 비리’ 강진 성화대 총장 구속

뒤통 4억원 챙긴 혐의...사무국장·행정실장도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태철)은 2일 교수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진 성화대에 A교수 등 4명으로부터 1인당 1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총장의 친인척인 사무국장 최모(54)씨와 이들을 도운 행정실장 조모(53)씨 등 2명도 최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과 8월에 A교수 등 4명으로부터 1인당 1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총장과 사무국장인 최씨가 처납기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공모해 다른 교수들도 뒤통을

받고 채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특히 지난 2008년 4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를 포함한 학교자산 등 총 50여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 기자

후보 사무실 방화범은 정신질환자

광주남부서 불구속 입건

광주시 남구청장 예비후보자 선거 사무실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불은 지른(본보 3월 15일자 6면) 것은 30대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광주남부경찰은 2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선거 현수막 등을 손괴한 기모(39·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정재촌 남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사무용품 등을 어지럽히

고 출입구 앞에 놓인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씨가 쓰레기통에 불을 피울 때 선거 사무실 내에 있던 ‘당원추천인 명단’과 공천 신청서 등의 서류도 함께 태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기씨의 족적을 채취하고 기씨가 복용 중이던 약봉지를 수거해 이를 토대로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기씨를 붙잡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898억 횡령 ‘박부장’ 징역 22년 6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2일 화산동 1천89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前)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상수(4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6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2년6월은 누

범(累犯)이 아닌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상한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1천898억원을 횡

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 제삼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 등 1천898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7분

해질녘 18시 55분

달돋이 23시 43분

달질 08시 37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서울

인천

대전

전주

대구

부산

제주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애남

장흥

고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흑산도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